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일동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이호와 나의
내가 주를 사랑하여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대한예수교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다음주일설교

이스라엘의 실수



김성관 목사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에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으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10:1-13).

가장 중요한 질문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이라든 누구나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하며 가르쳐야 할 위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교훈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욱 적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진 않지만, 성경적인 복을 얻는 데만 온통 마음을 쏟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교회들이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데 열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속적인 복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책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 필요한 신령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책임입니다. 사탕에는 여러분, 제과 물은 말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실하게 신뢰하십니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악을 즐겨하지 말라며 고린도교회에 권면하는 바울의 말을 이 시간 깊이 살펴보면서 앞의 질문을 진지하게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복을 누리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제가 늘 있었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가 있었으며, 매일 같이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고, 사막에는 सूक्ष्म 흐르는 물이 있었습니다. 또 적들을 만날 때마다 대승리를 거두었고,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대다수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은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대로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을 따라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조사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탕에는 여러분, 참된 믿음과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믿음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차이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왜 중요한지도 설명해 줍니다.

넘치도록 부어진 은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실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지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이라.”(1-4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낯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호위하셨고 인도하셨습니(출 13:21-22 참조).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께는 여러분 앞에 자신의 인품을 가지치기로 보아주시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인도하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므로 백성의 노예 신분과 죄악, 그리고 세속의 쇠사슬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출 14:29,30 참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온 것은 그들의 모든 죄와 죄짓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생함을 상징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모든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가 있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그들을 인도하셨고, 세례를 주셨으며, 영적인 지도자를 주셨습니까.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정화하게 바라보다 나아갔고 있었습니다. 이것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신령한 음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만물을 먹고도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복을 누릴수록 죄악으로 치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어떤 이들은 부도덕한 생활을 했으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 어떤 이들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7-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로 향하여 여러 차례 회개를 촉구하셨습니. “나에게 돌아오라...”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시 1:23).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스

라엘 백성처럼 행하지 말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보고서 교훈을 얻어 불평을 당하지 말고도 당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범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참으로 위험한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이런 신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굳게 확신하지만, 결국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호수아와 가렘을 제외한 출애굽 제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는 우리는 아닌가?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열매와 재리의 유희와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마음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막 4:19). 광야를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반나그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 그래서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고로 일당에 고향한 하나님의 심원이 불만스러웠습니.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반신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천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엢 2:2,3).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보자

하늘에 속한 것보다 땅에 속한 것들을 더 크게 소망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얼마나 흔히 범하는지요? 어떤 사물이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곧 음란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얼마나 흔히 범하는지요? 하나님과 그의 종들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얼마나 범하는지요? 여러분의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곧 불평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불평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크게 사랑하고 있지 않으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길을 무시하고 결단로 치우쳐 있지 않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니...”(고전 6:9,15).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득 고만하거져서 하나님을 가장 마음대로 해 보려고 했습니. “하나님은 모든 것은 하실 수 있으신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 주시고 저렇게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반석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지 않아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2절). 바울의 이 경고를 명심하십시오!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소망과 신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두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배과 전갈을 벌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골 1:13) 그러나 너희들이 너희에게 향박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눅 10:19,20). 아멘!

위엿 것을 생각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3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명심하십시오. 광야를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세상에서 속한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 늘 얽여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십시오. 즉,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로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 주신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

ISRAEL'S MISTAKES

"...Nevertheless, with most of them God was not well-pleased; for they were laid low in the wilderness.

Now these things happened as examples for us, that we should not crave evil things, as they also craved. And do not be idolaters, as some of them were; as it is written,

"THE PEOPLE SAT DOWN TO EAT AND DRINK, AND STOOD UP TO PLAY. ..." (1 Corinthians 10:1~13)

In today's Bible passage, we find a great doctrine that all Christians need to learn, practice, and teach. Sadly, most Christians don't even know it, yet alone live it because they read the Bible for their own earthly benefit. The results are tragic. Too many believers and churches are striving for worldly blessings. They sincerely think that the word of God is about earthly security. It's not! The Bible is about Christ. It provides the spiritual information you need to place God at the center of your existence. Is God first in your life? Do you truly believe in Jesus Christ more than in yourself? I want you to think about these questions as we carefully examine Paul's exhortation to the Corinthian church not to desire evil things as the Israelites did in the wilderness.

In the wilderness, the Israelites had it all: the presence of God, Moses in the image of Christ, manna from heaven, water in the desert, destruction of their enemy, and safe passage through the Red Sea. Indeed, the Lord God provided everything for their salvation. They lacked nothing! Yet, with most of them God was not well pleased, for they died in the wilderness. Without doubt, they made some big mistakes. Many Christians today behave in similar fashion to the Israelites in the wilderness. They listen to Christ, and even believe they are practicing their faith.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y don't have real faith.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real faith and faith in earthly things. 1 Corinthians 10:1~13 not only points out the difference, but explains the problem.

Every Israelite received God's blessing. They "were all under the cloud and all passed through the sea; and all were baptized into Moses in the cloud and in the sea; and all ate the same spiritual food; and all drank the same spiritual drink, for they were drinking from a spiritual rock which followed them; and the rock was Christ"(vv. 1~4). God led these people in a pillar of cloud by day and in a pillar of fire by night, never taking it away(see Ex. 13:21&22). What a blessing! Can you imagine the visible presence of God before you, as He leads you to eternal life? He led them from slavery, sinfulness, and all the chains of this earthly life safely through the Red Sea (see Ex. 14:29&30). Their crossing through the water symbolized the cleansing of their sins, the beginning of their becoming God's children. Remember, all passed through. Also, they had Moses before them in the image of Christ, leading them to the Promised land. Just think about God's leading, baptizing, and giving them a spiritual leader. They were headed exactly in the right direction. Not only that, but God provided for their daily spiritual food. They ate manna and drank from the rock of Christ.

The Israelites wanted their own selfish desires. Some practiced idolatry, some acted immorally, some tried the Lord, and still others grumbled against Him(vv. 7~10). God was very angry about this. He repeatedly asked them to return to Him, so that He could return to them (see Zech. 1:2&3). Paul warns us not to do as they did. He wants us to learn from our ancestors mistakes, so that we will not perish. We are not to follow in their paths. This is important. A lot of believers make mistakes, which is dangerous. Even though they

believe they are following Christ, like the Israelites followed God, they end up with bad results. All, save Joshua and Caleb, died in the desert. Obviously, this is a serious matter.

The Bible tells us, "worries of the world, and the deceitfulness of riches, and the desires for other things enter in and choke the word, and it becomes unfruitful" (Mk. 4:19). This is exactly what happened to the Israelites. They weren't sure God was all-powerful; they wanted a golden calf. They weren't satisfied with manna; they wanted Egyptian food. They weren't happy about their circumstances; they spoke against God and Moses. They complained about the judgment on the rebels led by Korah; they blamed Moses and Aaron. Again and again their lives didn't reflect God's glory. Before we became God's children, we were dead in our trespasses and sin, we "formerly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of the spirit that is now working in the sons of disobedience. Among them we too all formerly lived in the lusts of our flesh, indulging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of the mind, and were by nature children of wrath, even as the rest" (Eph. 2:2&3).

Placing your desire for earthly things above your desire for heavenly things is idolatry. How often do you practice this? Worshipping anyone or anything above God is an immoral act. How often do you do this? Speaking against God and His servants tests the Lord. How often do you try the Lord? Complaining about your life's circumstances is grumbling. How often do you grumble? My friend, do you love this life and the things in it more than you love God? Are you following a path different from the one He has given you? "Or do you not know that the unrighteou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ies are members of Christ?" (1 Cor. 6:9&15). The Israelites thought, "God you do everything, so why not do this and that for us." Are you, too, smarter than God?

We are living in the end times. Jesus is coming soon. Paul warns us, "Therefore let him who thinks he stands take heed that he does not fall" (v. 12). Are you listening? Christians believe in Jesus Christ. They believe in Jesus more than they believe in themselves. They place all their trust and hope in Him alone. He says, "Behold,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ead on serpents and scorpions, and over all the power of the enemy, and nothing will injure you. Nevertheless do not rejoice in this, that the spirits are subject to you, but rejoice that your names are recorded in heaven" (Lk. 10:19&20). Amen.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but such as is common to man; and God is faithful, who will not allow you to be tempted beyond what you are able, but with the temptation will provide the way of escape also, so that you will be able to endure it" (v. 13). My friends, flee from evil. Don't lust after the things of this world, like the Israelites did. Don't become diverted by the here and now. God knows your every need. Set your heart on heavenly things. Deny yourself, which is the opposite of self-indulgence. Take your cross, which means finding joy and peace in the life God has destined for you. Follow Jesus! 🙏

오늘, 2003년도 제 5차 성찬식 및 전(全)교인 가족연합예배

오늘은 2003년도 제 5차 성찬식이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에 걸쳐 시행된다. 이번 성찬식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약하도록 하자. 또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에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찬란한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도록 하자. 특별히 이번 성찬 예배(2부, 3부 예배)는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찬식의 의미를 자세히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하자. 그러하여 온 가정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데 한 뜻으로 온전히 헌신하도록 하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중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풍성히 베풀어지기를 소망한다.

중추절 가정 예배 모범

- ◆ 찬 송 460장 다 같이
-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 ◆ 성경교육 눅 12:16-21 다 같이
- ◆ 말씀선보 첫번 부요함·참된 부요함 인 도 자

“첫번 부요함·참된 부요함”(설교본)

세상 사람들은 중추절에 한 해의 풍요로움을 서로 나누며 첫번 우상이나 죽은 조상에 감사사를 돌린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추절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며 참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풍요와 번영'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본문에는 어떤 부자가 나온다. 그는 쌓아둔 것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17절). 이 세상의 눈에는 이 부자처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로 판정하셨다(20절).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자는 어리석은 자, 곧 멸망에 처할 거대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다.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해 주지 못한다. 이 부자를 보라. 그는 주재할 수 없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로 정죄하셨으며, 그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생각하면서 풍요와 번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 풍요와 번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참 신자'로 인정해 주시며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을 더 사모하도록 하자.

2.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은 부자

부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자기 밭의 소출이 풍성한가를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신한 일을 위해 그 재산을 사용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재산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데 있었고, 그것을 밑천으로 남은 여생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 있었다. 이런 부자를 향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질책하셨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둑이 훔쳐갈지 모르나? 그러니 내 배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20절). 즉,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등은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는 무관심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전해 주자. 그런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또 그런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르는지를 깨우쳐 주도록 하자(20절 참조).

3.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참으로 부요한 자임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할 때에도 영원히 부요한 자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보라(눅 16장). 죽는 순간 부자는 영원한 비참에 떨어졌으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참으로 부요한 자임을 깨닫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부요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부요한 자가 되며, 복을 전도 사역에 부요한 자가 되고, 의의 열매에 부요한 자가 되도록 하자(골 4:13, 마 6:33, 딤후 12:3). 추서 명절을 보내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자.

- ◆ 기 도 인 도 자
- ◆ 찬 송 359장 다 같이
- ◆ 주기도문 다 같이

2003년도 하반기 교육훈련연구원 개강

2003년 9월 14일(주일) ~ 11월 30일(주일)

2003년도 하반기 중현전도대 훈련과 찬양대원 양성부 교육이 9월 14일(주일)부터 실시된다. 특별히 중현전도대에서는 전도에 대한 새로운 동기와 도전을 붙여넣기 위하여 8주간의 하반기 교육을 준비하였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 10:32-33). 이번 훈련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려는 성도들에게 참 복음 전도자가 알아야 할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강의·실습을 통해 가르칠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중현교회 찬양대 기초 교육의 창구 역할을 해왔던 찬양대원 양성부 교육은 이전보다 더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되도록 정성적 강의를 준비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찬양대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영역 무장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음악이론 교육(5시간), 음악 실습 교육(14시간), 특히 발생연습과 발생적 합창연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찬양대원에 입문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육뿐 아니라, 기존의 대원들도 꼭 다시 배워야 할 다량하고 내실있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아무쪼록 2003년도 하반기에 실시되는 모든 교육을 통해 거룩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신한 청지기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한다.

※ 주간성경공부 2003년 하반기 개설요목

일 시	화요일	수요일
오전 10:30~12:00	느헤미야(이태복 목사)	
오후 2:00~ 3:30		요한복음(김용덕 목사) 이브리서(김정수 목사) 마태복음(안창덕 목사) 빌립보서(서광진 목사)
저녁 7:30~ 9:00	예베소서(정준영 목사)	

제 57기 교사양성부

2003년 9월 14일(주일)~11월 30일(주일), 12주간

매 주일 오후 3:00~4:30, 베다니홀

제 28기 찬양대원 양성부

2003년 9월 14일(주일)~11월 30일(주일), 12주간

매 주일 오후 3:00~4:30, 찬양위원회의실

전도대원 훈련

2003년 9월 17일(수)~11월 5일(수), 8주간

매 주 수요일 오후 2:00~4:00, 나사렛홀(본당 1층)

일자	강 의 제 목	강 의 내 용	강사
9월 17일	전도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전도의무	여국근 목사
9월 24일	전도의 내용	전도할 내용에 대한 이해	
10월 1일	결신자의 의미와 내용	결신이란 무엇인가	
10월 8일	전도실습1/교회주변 전도	현장실습	
10월 15일	전도의 실제적 문제	전도 시 부딪히는 실제적 문제	
10월 22일	반대질문 및 답변	반대질문 답변 및 문제해결	
10월 29일	전도실습2/방문교회전도	현장실습	
11월 5일	수료예배	예배 및 수료식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9월 5일(금)~9월 13일(토)	스리랑카	5교구 1지역	이지은

◆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8월 26일(화)~9월 5일(금)	카자흐스탄	9교구 8지역	조종광
8월 26일(화)~9월 5일(금)	카자흐스탄	17교구 9지역	전학래

하나님의 은혜야 말로...

권 병철 (질사, 17교구 10지역)

의료진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된 우리 팀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불가리아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짐 검사자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관을 위해 기도하고 약품과 전도지를 개인 짐에 나누어 넣었다. 공항에 도착해서 건강하고 나가는데 앞서가던 다른 팀(1교구)원이 검사대에 짐을 올리자 기체가 고장났다. 덕분에 우리 팀은 짐사를 받지 않고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다.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우리 팀의 중심사역지역인 불가리아의 남서부 그리스와 산란스키에 도착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 "몇 명이 왔느냐?", "언제까지 있을 거냐?" 등의 질문을 하고 체류지 신고를 하라고 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다. 하지만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렘 1:8)는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노방전도, 축호전도, 의료사역을 예정대로 실시했다.

그곳은 불가리아 정교가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나 이단으로 취급하는 등 개인교를 핍박하여 사람들이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예배와 성경공부를 하는 가정교회와 여러 곳 있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가정교회의 어떤 인도자는 친척에게 1년 동안 전도해도 복음을 듣지 않았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팀이 나누어 준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알려주다 갔다"며 교회에 나오겠다고 좋아하기에 '내가 바로 그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글로 표현할 수 있었는가? 어떤이는 동네에 믿지 않는 가까운 이웃들을 부르기로 하고 우리 일행을 초대했다. 우리는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시메온', '마리아' 남매가 영접기도를 하고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의료사역은 현지 의사와의 협진만이 가능했고 중증환자들의 수술이 많았다. 대기하는 시간에 일대일 전도를 했다. 먼 곳에서 연락을 받고 진료를 받으러 달려온 현지 의사의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성령님의 세밀한 계획에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말씀에 순종하여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갔다. 이것이 복음의 빛인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임을 깨달았다. 나같은 죄인이 선교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 의건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이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느라 그곳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다.

언제나 바름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비취케로' 코 때끼기 전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선교를 처음으로 떠나는 기대보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조심성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조교사장이 배어있듯이, 키르기스스탄은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이슬람을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 속 깊이 들어있는 그 사상을 떨치내고 생각을 뒤집어 놓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전도지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몰카르드는 저를 보면서 몇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한 자신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발늦게까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그저 단단한 갑옷을 입혀 전장에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옵소서...'

사역 후, 저뿐 아니라 팀 전원이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 밖에 할일을 깨닫고 밤늦게까지 기도를 기렸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 문화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나오는 작은 불평들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서로 용기를 북돋으며 다음날을 맞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탄하게 사역을 시작하

하나님, 몽골 사람을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스카 (외선부-몽골팀 귀국자)

제 이름은 '바스카'입니다. 몽골에 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 듣기만 했고, 교회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사찰에서 절하고 스님들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충현교회에는 남편 '토고'와 함께 왔습니다. 남편이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몇 달 후였습니. 충현교회 단기선교팀이 울란바타르 공청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저는 그 공청에서 집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충현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교회 처음 올 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신생들이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해 주었고 기도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다니기만 하면 믿는 사람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다닌 후부터 제 인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몽골 사람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추석수련회에서 저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수련회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영혼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땅까지 저를 인도하셨어 제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며 기쁨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어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고, 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고, 살아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욱 믿게 됩니다. 하나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제 저는 몽골에 돌아가려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왔지만, 여기 와서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가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자기 품에 안고 저를 나쁜 일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이 피로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스카는 2000년 12월 24일 충현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포천지역리더와 천령리더로 외선부 몽골팀에서 섬기다 2003년 8월 28일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4년만에 몽골로 귀국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있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흐르면 효율수록 더 많은 기적과 역사를 저의 눈앞에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행상하고 주 예수님 눈물로 영접한 그들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지만 벌써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굳게 닫은 이 나라 사람들을 깨닫게 할지 모르겠으나 애쓰는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곳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물과 거름을 주는 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그곳 젊은이들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열매 맺도록 저에게 하실 것입니다. 한한 표정으로 밝게 웃으며 우리에게 마음문을 연 이곳 젊은이들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그곳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여호와의 증인까지 들어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다른 나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앞으로 사역을 나가실 분들을 위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각지의 생명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강 한나 (청년 1부)



나의 죄 홍악하나

박 보 람 (고동부)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아 저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조금해졌습니다. 기도원을 향하는 버스에서 내가 수련회에 가는 것이 시간 낭비는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집착했던 것, 부모님께 대들었던 것, 세상의 음악을 즐겨듣는 것 등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부흥회에서 참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수련회를 다녀왔다는 것을 이유로 주님께 무언가 받아내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순간 저는 기도원에 앉아있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천신으로 회개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 특별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에 굉장히 급급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급급했던 문제들이 아니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그저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는 주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대학 진학에 실패하게 되더라도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저 좋은 대학에 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

랑하고 주님 안에서만 살아갔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큰 가르침을 얻었지만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전도할 때 저는 각 집에 서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것에만 연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정말 큰 사랑을 선물해 주셨는데 저는 감히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담대함을 주세요.' 열심히 전도한 고동부 친구들에게도 정말 미안합니다.

처음에는 교회갈 때, '고등학교생이 이렇게 시간 허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교회에 아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고 어색하기만 해서 별로 정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생인 성도가 아니라 성도인 고등학교생이고, 또 교회는 그 누구도 아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귀중한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달라진 것이 또 있습니다. 함께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만난 고동부 친구들을 '그냥'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합니다. 제 마음 속에 이런 사람이 싹트는 것이 저도 참 신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주님이 제게 주시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더 나은 나 되기 위해 다같이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이제 고동부 친구들이 모두 성령충만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다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충헌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저질렀고,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피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회생입니다.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까지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십집입니다. 부족하고 더러운 나를 위해 채찍질 당하고, 침해를 당하고, 가시연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기에 나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 26:39)라고 하신 것처럼 나도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면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나도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에 빛난 자로서 십자가를 모르는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삶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다면 나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감사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나도 죽기까지 주를 섬기며 주님의 영광이 되는 도사로 쓰임 받았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랑과 회개와 감짐을 보여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삶도 십자가를 쫓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강헌지 (장학생)

오직 말씀으로

복음의 사람 베드로, 율법의 사람 유다

복음을 듣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분명 복음으로 들어와 은혜를 깨달았는데도 자꾸 율법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여 자신의 생활을 규정한다. 이러한 습관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보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든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을 보며 교만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 십자가로 돌아와야 한다.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구원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는 그만 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자들은 복음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본질을 모르는 자요, 결국 복음을 배워 필자 가능성이 많은 자이다. 마치 예수님을 만 가뭇유다처럼.

가뭇유다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러나 그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필자는 주일학교에서 그 차이를 회개와 자살의 차이라고 배웠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일 뿐이지 근본적인 답이 될 수는 없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몸을 싣었지만 유다는 율법을 지켰다.

베드로도 유다도 자신의 죄를 알고 부끄러웠지만 부끄러움은 그의 행동은 서로 달랐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자복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했다. 그는 율법대로 행하기 보다 은혜를 구했다. 그가 율법을 따랐더라면 그는 죽어야 했다(신 13:5, 왕하 10:9). 그러나 그는 살아서 주께 은혜를 구했고 주의 언약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의 행동을 보라. "사도들은 저의 말이 허탄한 것이 되어 믿지 아니하시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눅 24:11,12a). 그러나 유다는 베드로와 정 반대의 행동을 취했다. 그는 율법에 쓰인 대로 행동했다. 먼저 예수님을 만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그럴 수 없게 되자 자복을 택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율법을 이용하여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인간은 율법을 지키며 아뭏든 재앙에 빠지곤 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의 공로가 어느 정도 개입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단 하루라도 율법적인 생각이 우리를 떠난 적이 있는가? 그런 거룩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필자와 필자의 조서에 올랐던 사람들은 율법적인 생각을 단 한 순간도 떨쳐버릴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리하여 선행을 하거나 주일을 지키고 많은 봉사를 하면 마음에 스스로 만족감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흐트러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잘 못하면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고��스러워한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이러한 인간들의 습성을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고자 '자기연민과 자기만족'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필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만 쫓으면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로 돌아가서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그리고 정당하게 율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 참조 (권오섭)

십자가

—존 뉴튼(John Newton)

긴긴 세월 죄악 속에 뒹굴면서도
수치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는데
내 눈을 사로잡은 어떤 이가
방종한 삶을 멈추게 하실 때까지

나무 위에 달리신 분 보았으니
고통과 피에 흠뻑 젖었으니 분이라
그분의 십자가 옆에 나 서 있을 때
그분의 곤한 눈길 내게 쏟아졌네

내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이라도
어찌 그 눈길 잊을 수 있으리요
비록 한 마디 말씀도 없었지만
그분의 죽음은 내 죄를 책망했네

그 분이 나를 다시 보셨을 때
그 눈길 내게 말했네
“네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노라
이 피는 내 구국을 위해 흘려진 피요
내가 죽음은 너를 살리려 함이라”

그분의 죽음이 내 죄를 드러내고
그 추악함 날같이 들춰내는 사이
은혜의 신비 참으로 기묘하여
내 죄사함도 인(印)처럼 주셨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1. 특별히 사모하는 찬송과 그 찬송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32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를 늘 마음 속으로 찬양하곤 합니다. 325장 3절 '네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회개하고 곧 문을 열이나 드서서 죄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를 고백하면서, 예수께서 제 안에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분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났습니다. 또, 455장의 후렴구 '나 주님만 따라 가리' 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 하리라 다짐합니다.

2.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학생 시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 중등동부 학생회와 예쁜 찬양대에서 섬기면서 신앙 선배들의 분을 따라 살리고 나름대로 노력했지요. 또, 교회사절부터 3년 동안 체육 전공 입시를 준비했는데, 대학 진학에 두 번 실패한 후 잠시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메시야' 를 찬양하면서 찬양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뒤늦게 성악 공부를 시작해 전공하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그리고 이 마음 또한 언제까지나 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3.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찬양대원으로서 또 독창자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찬양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겠기에 그렇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게 더 많은 재능을 주셨더라면'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음을 믿음으로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당장 죽게 되더라도 기꺼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선생
가브리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임해원 기자)

4. 기도제목들 말씀해 주세요.

단기선교를 하면서 선교가 곧 나를 살리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찬양 또한 선교를 위한 것이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생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오일

13교구 서인천 구역 이성진 군

이런 적부터 근육위축성 측삭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 기관에서 치료중입니다. 현재는 입까지 마비되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병을 앓고 말을 못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3교구 교장 구역 황순기 집사

4년째 근육위축성 측삭병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누워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영혼이 위로받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위의 두 환자가 알고 있는 근육위축성 측삭병은 온 몸의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어가며 죽어가는 희귀병입니다. 원인도 치료법도 모릅니다. 환자 자신들 뿐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도 큼니다. 각별한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 · 가 · 족 · 을 · 향 · 명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112	김민희	1 청년2부		1119	정희숙	9 청년2부		1126	차정희	19 대학부	이혜선(2)
1113	정경호	1 청년2부 윤석구(14)		1120	박금숙	10 소망부 신현숙(11)		1127	정은숙	19 청년1부	박노경(1)
1114	김유자	1 청년1부		1121	신광현	11 청년2부 오영주(11)		1128	이승호	1 청년1부	박노경(2)
1116	이진희	6 청년1부 이상경(6)		1122	김정근	12 청년3부 조영현(12)		1129	김상인	19 청년2부	김용현(8)
1116	최성희	19 청년2부 김용중(18)		1123	안은진	14 청년1부 서인자(18)		1130	김상미	19 청년2부	김용현(8)
1117	강재원	13 청년1부 장규영(6)		1124	박연인	15 소망부 이상근(15)		1131	문영진	19 청년2부	김창국(1)
1118	김영술	9 청년2부		1125	정만식	17 청년3부 권용해(8)					

*송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531장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이 찬송은 가난 속에 살면서 젊었을 때 생진 전식과 폐병으로 고생했던 작시자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Henry Frances Lyte, 1793-1847) 목사의 가장 유명한 대표작이다. 그는 해병 교회에서 성직이 거친 어부들 틈에서 약 24년간 목회를 했는데 거친 어부들은 라이트 목사의 사랑에 녹아 양같이 순해져 병약한 라이트 목사를 무척 사랑했다. 그러던 그가 54세 때 건강이 한계에 도달해 병든 몸을 이끌고 낚시 곳으로 떠나가게 되었다. "주님의 양들을 돌봐 주소서. 이 종이 가는 곳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하는 곳이었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세상의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쓸쓸한 길에서 그토록 무력한 자를 도우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했다. 그 기도를 여덟 개의 절에 담아 엮어 냈는데 한국 찬송가에는 내 개의 절만 실려 있다.

1절: 나와 함께 하옵소서 환혼이 속히 떨어집니다 주여 어둠이 깊어갑니다.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날 돕는 자 위로 하고 위로 얻을 곳 없을 때
아, 무력한 자의 도움되시는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2절: 인생의 짧은 세월 속히 끝나고 죽음에 이르러 이 땅의 기쁨 희미해지고
그의 영광 지나갑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 다 변하고 썩습니다.

아, 변함은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3절: 세월이 흐르는 순간 순간 주의 임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 알고
무엇이 유혹자의 권세를 깨리요? 주님 알고 누가 나의 인도자요.

지주자 되리이까? 슬픔때나 기쁨때나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4절: 주여 나 는 길을 때 주의 십자가 높이 들어주시고 어둠 속 비추사
하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새 아침 동트고 이 땅의 헛된 그림자
사라지리니. 시나 죽으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찬양위원회)

하나님의 선교

양 회 옥 (소년부 교사)

우리는 우즈베크스탄의 굴리스탄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곳 주민은 거의가 무슬림이며 다른 종교를 전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되어 잡혀간다는 통역자의 말에 우리는 위축되어 그저 묵묵히 기도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그

리다가 우리는 우즈베크스탄에서 새로 제정되었다는 법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더욱 힘이 빠졌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종교법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법령에는 백명 이상의 교회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하며 교회의 모든 전도 활동을 비롯해 주일학교, 가정 성경공부, 여름 캠프 등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되어있다. 실질적인 탄압이었다. 우리는 막막해했다.

“하나님, 어디에 복음을 뿌릴까요?” 하는 질문만 반복하고 있었는데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집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이 낯선 우리들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눈을 뜨고 기도했다. 기도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았지만 그 날은 안 되겠다 싶어 나왔다. 그런데 우리를 반겨주었던 사람들이 따라 나와 정중하게 배웅인사를 하면서 삼일 후에 신부가 오니까 그 때도 잔치에 오라고 했다. 할렐루야, 그 때에는 두려움 없이 전하리라. 분명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였다. 삼일 후에 그곳으로 다시 갔는데 그 때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담대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반기가 많아주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 신호를 주었던 곳, 가슴이 쿵쿵거리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귀빈석으로 보이는 곳으로 안내를 받아 앉았다. 계속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순간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죄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고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데려오는 행렬이 몇 차례 계속되었다. 우리는 정신이 없어서 몇 명이 영접했는지 셀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영향을 우리를 구원의 귀한 통로로 써 주신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도 알 수 없는 출을 주었다.

‘솔리포르트’라는 한인 마을도 갔었다. 그곳에서 팀원 중 한 명이 지나가는 한 자매에게 화장실을 빌리고 싶다고 청하였다. 그 자매는 친절하게 자기의 집으로 안내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 화장실을 빌리고자 들어갔는데 손님으로 초대되어 차와 과자를 대접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도 드렸다. 감격하여 눈물이 나왔다. 다음날 다시 와서 성경을 주기로 하고 나오면서 다른 집을 소개해 달라고 했지만 위험해서인지 다른 집 가는 것을 만류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날 하기로 계획된 전도지 배로 때이라도 이 지역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기를 기도하고 나왔다.

그 후에는 그동안 이용하였던 식당 매니저와 주방장 두 사람 그리고 음식 나르던 아가씨 두 사람에게 전도지와 성경을 전해주고 수소를 청소했던 아줌마들과 아저씨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나중에는 숙소에 함께 묵었던 먼 지방에서 온 손님들까지 주님을 영접하고, 숙소 옆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 직원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우리는 단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뿐인데 그 짧은 시간에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려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다. 운전기사 ‘알리세르’가 생일을 맞아 우리팀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 접대를 받은 후 복음을 전해왔던 예수님의 영접을 거부했다. 그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도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쉬웠지만 발에 흙을 털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후에도 운전기사를 우리가 경찰서로 데려가 취조를 받는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등 계속 복음을 전하였다. 사역종료 예배 후 우리는 출국하기 전까지 우리가 거쳤던 그 땅들을 돌아보고 났으므로 기도하였다. 그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카자흐스탄 2차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 **에바다부** 선교기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잘 이끌어 주시고, 큰 어려움 없이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가정집 전도사역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도 있었고, 영접하지 않은 가정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슬람을 믿는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여 축복받기를 기도하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선교사역을 하면서 많이 부족했지만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선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을 늘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변은정 (에바다부)

☞ **내가 카자흐스탄에** 간 이유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이다. 이방 농아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갈등이 조금 있었으나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편해졌다. 나는 카자흐스탄 수화가 부족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카자흐스탄 수화를 많이 배웠다.

딸지코르간으로 이동할 때 배, 하늘과 땅, 식물 등의 풍경은 아름다웠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넓은 초원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또한 예쁜 식물들이 신비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에 다시금 감탄하였다.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많은 딸지코르간 농아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화를 해보니 이슬람을 많이 믿었다.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참 힘들었다.

가정집 전도사역을 중 여러가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다. 다택리에서 농아인들을 만날 때는 사랑의 마음이 샘솟았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라서 참 감사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농아인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카자흐스탄에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송윤구 (에바다부)

〔 믿음의 학교에서 〕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하 34장)

“요시아가---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1-2절)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왕(君王)인 요시아는 정직했습니다. 정직의 기준은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 아닌 주님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사람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팔 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십 이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3절). 요시아가 나이 16세, 골육취 8년째 되던 해부터 12년째 되던 해까지 비로소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가 전에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16세가 되어서 자의적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요시아는 가장 먼저 성경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숭배를 받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술, 담배, 돈 등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지는 않나요? 우리도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결단하고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요시아는 ‘비로소’ 성전 안에 있는 산당, 아세라, 우상들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본 자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은 무려 6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즉위 12년-18년). 종교의 타락, 우상 숭배의 잔재를 없애는 데 6년이 소요된 것입니다. 요시아는 그 후에 성전을 수리합니다(8절). 성전이 이 참 의미를 드러내려면 먼저 하나님 이외의 요소를 성전 안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성전을 헐고 더럽힌 자들은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인들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11절).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습니다(14-18절). 그로 인해 요시아는 회개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19절). 하나님을 아는 요시아는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말씀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 말씀을 바로 깨닫아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은 무가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한 모습으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자신과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형익 기자)

부독사				
이복사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25부	25부	25부	25부	25부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준	여근
10부	10부	10부	10부	10부
김교성	이유진	인창덕	방준영	나광영
11부	11부	11부	11부	11부
정호진	김용덕	이성호	고광현	원진광
12부	12부	12부	12부	12부
김진영	김정수	장 훈	임태민	이희식
13부	25부	15부	17부	25부
최승환	홍철경	안찬희	이내복	강종신
14부	17부	14부	25부	15부
양용호	이성진	김주호	최성규	이계영
25부	25부	25부	25부	25부

■ 전도조사 이정철 ■ 남전조사 이영희 (7)

■ 전도조사

경원회	신동자	윤윤성	한영준	김연식
10부	42부	10부	12부	17부
홍은자	이옥주	김만자	안태순	김정연
10부	62부	52부	52부	10부
조옥자	강덕필	김정신	장계구	최문설
12부	15부	15부	12부	11부
전희희	김영순	김경자	이수경	
17부	12부	12부	15부	

■ 전담감독 강기순 ■ 전담지휘 서문성

■ 전담감독 김기순 ■ 전담지휘 서문성